

OPINION

2025년 7월 4일 금요일

문화산책

이당금

예술이 백그라운드 대표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F1: 더 무비'에는 굉음이 폭발하는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한다. F1 카레이싱은 70여회 이상 레이스 하는 고속 경기로,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도 속에서도 순간의 선택과 정밀함이 승부를 가른다. 우승의 관건은 속도뿐만이 아니다. 타이어 교체와 같은 피트 스톱(경기 중 타이어 교체나 차량 점검을 위해 잠시 정지하는 것)은 단 0.5초의 차이로 승패를 뒤바꿀 만큼 치열한 '또 하나의 레이스'다.

영화 속에서 이제 막 입문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팀과 함께 타이어를 교체하는 긴장 속에서 '느리면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빠르다'고 중얼거린다. 이 문장은 역설적이지만, F1 경주의 본질을 말한 것이다. 속도를 다루는 경기일수록 부드럽고 정밀함이어야말로 최고의 속도를 이끌어내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신참부터 노련한 엔지니어들까지, 이들의 호흡은 철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예술적 팀워크로 완성된다.

F1 카레이싱은 단지 카레이서만의 경기만이 아니다. 차량, 테크닉, 슈퍼바이저, 감독, 그리고 엔지니어 등 수십여명이 하나로 맞물려 움직이는 집단적 스포츠 예술이다. 그 중 한 조각이라도 빠졌다면, 승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 치열하고 완벽한 조화의 철학은 우리 지역 문화

느리면 부드럽고, 부드러우면 빠르다

예술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서두르지 말고 정밀하게, 서로의 호흡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한다. 예술도 결국은 팀워크의 완성이고, 치밀한 협업과 긴밀한 소통에서 비로소 진짜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K-컬처 주역들과 함께'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 간담회를 열었다. 영화, 오페라, 뮤지컬, 드라마, 발레 분야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낸 예술가 다섯명이 초청되었고, 대통령은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끊임없이 메모를 남겼다. 초청된 예술가 수나 분야의 대표성 면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었지만, 제법 준비된 예술가들의 질문과 정책 방안에 대한 대답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예술에 대한 국정 철학과 접근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껏 어떤 행정이나 정치 리더에게서도 들을 수 없었던 예술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문화예술은 개인의 취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공공자산이다. 우리는 예술을 즐길 때 공공재처럼 누리지만, 정작 생산은 예술가의 몫으로만 떠넘기고 있다. 우리 사회는 문화예술에 대한 태도를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가 또한 탁성공론하는 정부가 해주길 기다리지 마라. 다양한 층위의 예술 분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라. 끝장날 때까지 집단 토론을 해서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정해 직접 정부에 요구하라. 예산이 현장에 닿으면, 그 효율성과 창조력은 누구보다 예술가들이 잘 증명할 것이다.'

예술가 주도의 정책 설계, 즉 예술 현장에서 출발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해답

은 언제나 현장 그리고 창작의 자리에 있으며 문화예술 리더십의 핵심이다. 지금이야말로 이 흐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국정 주요 방향으로 삼으며 전국 최초로 '호남의 마음을 듣는다' 오픈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개최했다. 우리 지역사회가 그 방송을 지켜보면서 리더들의 준비되지 못한 답변에 답답해했다. 문화예술계 또한 이 지점으로부터 새로운 지역 예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이 소외나 열악함의 상징이 아니라, K-컬처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중심의 문화 구조를 넘어야 한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의 재설계, 그 중심에 지역 예술가들 스스로가 있어야 한다. 우리 지역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담은 문화예술 정책을 심도 깊고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연대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K-컬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기초예술의 힘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그리고 기본소득 제도의 지역적 특성 반영이 함께 이뤄진다면 문화의 다양성은 전국 각지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 예술가의 유출을 막고, 정책을 권장하는 실질적 토대가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서 있다. 그 중심엔 바로, 현장과 지역을 지키는 예술가들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기고

임수경

동화작가·오월문예연구소 위원



요즘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유월이 되어 제자리로 돌아온 아름다운 풍경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상징일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당시 반독재와 민주주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 부대와 규율, 보수 강경 세력 전유물처럼 오용되고 변질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 태극기는 '진관사 태극기'를 본뜬 것이다. 붉은 타 손상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사와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태극기 찢은 이재명, 국가모독죄로 대검에 고발한다"라는 어이없는 기사를 냈다.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의형님 보고 문제 삼는 건 왜곡된 애국심이다.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덧그린 3·1운동 직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하나뿐인 유물이다. 찢어진

제자리로 돌아온 풍경

천 조각이 아니다. 항일 독립 의지와 애국심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 역사를 묵묵히 증언한다.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진관사 부속 건물인 칠성각을 해체 복원하는 공사 중 내부 불탄과 기둥 사이에서 발견됐다. 19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발행한 독립신문류와 함께였다.

칠성각은 본래 도쿄에서 온 신앙이다. 북두칠성을 신격으로 모신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장수, 재물을 비는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불교가 우리 토속신앙과 융합되면서 사찰안에 칠성각을 짓고 칠성신을 모시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나타나는 신앙 형태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또 하나 풍경은 우리 토속신앙 무속이다. 누군가 -거명하지 않아도 안다- 때문에 흑제 무민 종교가 태버렸다. '소년이 온다'를 읽고 찢김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파울 켈란 '죽음의 푸가'는 홀로코스트 참상을 반복과 변주하는 음악을 통해 공포와 죽음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한다. 마치 라벨의 '블레르'와 우리나라 '강강술래'를 감상하는 것 같다고나 할까. '소년이 온다'는 조곤조곤 읊조리는 찢김국이다.

찢김은 죽은 영혼을 깨끗하게 씻겨 저승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지만, 살아 있는 사람 삶에서 얽힘, 한, 업보를 씻기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으면 씻기고, 찢기고, 또 찢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고통과 죽음, 그 이후 삶, 살아남은 자를 위해 닦아내려 찢기고 있다.

군인에게 확실한 동호 이야기는 찢김국에서 공수다. 무당 스스로 신이 되어 인간에게 전해주는 말이 공수다. 공수는 일종의 신탁기도 같은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종래- 왜 나를 찢지, 왜 나를 죽였지"(57쪽-58쪽). 이 부분을 김대중(강원대)은 "일종의 찢김국을 하듯 동호의 혼이 내는 목소리는 시제조차 찾을 수 없게 사라져버린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이지 않던 죽은 이와 살아남은 이들의 그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는 것"이라고 한 논문에서 언급했다.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통해 찢기고, 찢기고 찢김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영혼과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찢김국으로 위로한다. 고통과 아픔을 강렬한 어조로 말하지 않는다. 심장에서 사그르사그르 소리를 내게 한다.

취재수첩

폭염 취약계층에 나눔·연대 이어지길

양홍민

사회교육부 기자



찜통더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취약계층 거주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방문한 광주 동구 대인동 취약계층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볕더위가 골목을 장악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실내 열기를 빼내기 위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뒀다. 마당 여기저기엔 물이 뿌려져 있었지만, 좁고 밀집된 건물 구조 속에서 공기는 좀처럼 순환되지 않았다.

열기는 벽과 천장에 스며들어 실내를 찜질방처럼 데우고 있었고 선풍기 바람은 그저 뜨거운 공기를 밀어내는 데 그쳤다.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이들에게 에어컨은 사치였다.

이곳에서 만났던 주민들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한때 시계 38만개를 제조·납품할 정도로 30여년간 큰 성공을 거뒀던 A씨는 사기와 건강 악화로 삶의 중심을 잃었고, B씨는 전세 하나 등으로 생존 자체가 버거운 상태였다.

주변과 단절된 이들에게 '견디다'는 표현과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하루 한 끼 식사, 텅 빈 지갑, 땀에 젖은 채 열대야 속 잠을 청하는 노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현실이었다.

이들의 얼굴에는 체념보다 더 깊은 고독함이 가득했지만, 작은 회복의 실마리도 보였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와 '썬빛상담소' 같은 비주거 시설이 주민들에게 세탁과 샤워,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절된 삶에 작지만 소중한 숨통을 틔워주고 있었다.

광주는 5·18을 통해 나눔과 연대의 뿌리를 다져온 도시다. 그 정신은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여름에도 누군가의 방안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더 이상 이들이 '버티다'는 말 대신 '살아간다'는 말을 당당히 쓸 수 있도록 광주의 나눔과 연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독자투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해야

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하실 때는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해 열기와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면 복잡한 건물에서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기겁다.

따라서 비상구 유도표지판을 가리거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비상구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소방시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신고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포상 대상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이다.

주로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승환 고충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사설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기대되는 이유

나주시, 아니 전남도의 숙원사업인 에너지 메가벨트가 마침내 나주에 들어서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7년 전 후보지로 지정된 이래 표류하던 대형 국책사업이 이제서야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심장부로 도약할 전기를 맞이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총 사업비 3685억원을 투입,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부지 124만㎡(약 38만평)에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에너지산단을 공동 조성한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2026년 보상금 지급, 이후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 기업 입주 유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단이 조성될 왕곡면 일대는 현재도 에너지 관련 핵심 기관들이 포진돼 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와 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산·학·연 인프라가 밀집돼 있는 것이다.

여기에 에너지산단까지 더해지면 인프라가 단순 병존하는 수준을 넘어 유기적으로 연계된 에너지 산업 생태계로 확장하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은 자명하다.

특히 기존 나주혁신산단과 맞닿아 있어 이들 산단의 통합 운영도 가능하다. 즉 교통, 전력, 상하수도 등 공공 인프라 공동 활용과 행정지원 체계 일원화 등으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존 입주 에너지·첨단기술 기업들과의 기술 협업과 산업 융합 가능성도 높다.

국토부도 산단 완공시 3164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15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부지 개발을 넘어 산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향후 국내외 투자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견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곳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단지로 구축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RE100 실현을 위한 탄소 저감형 모델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방향을 가늠할 실험장이자 성장 엔진인 나주 에너지산단이 순항하길 기대한다.

전남 다문화 사회 '속도'...제도 마련 절실

전남의 인구 다양성 지수가 최근 5년 새 17.5%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도내 농공단지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자 등의 유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전남 지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별 인구 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보고서를 보면 전남 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446에서 2022년 0.0524로 17.5%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7.79%)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전국에서 인천(21.96%), 대전(17.67%)에 이어 세 번째다. '인구 다양성 지수'는 한 지역 내 인종·종교·문화 등 인구 구성이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 데 완전 동질적인 경우 0에, 완전 이질적인 경우 1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전남 다양성 지수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농공단지나 농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주민이 밀집해 있는 구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전남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 수는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4월 발표한 '통계로 본 다문화 변화상' 자료를 보면 총 1만632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2.0% 정도다.

이들 가구의 가구원 수는 총 5만 2817명으로 평균 3.2명이다.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정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597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2856명, 고등학생은 13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학령기 초·중등 단계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언어 지원, 기초학습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이들을 위한 지역 내 서비스와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업무 종사자는 2만374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다. 전남 도내 다문화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운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동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공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